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가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4층에서 열렸다.

성남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호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

조정식 시의회 의원 주최·방안 마련
현황 분석 등 '단계적 로드맵' 제안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가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4층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올 4월 시작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 2025년부터 의무화될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비하고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과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및 성남시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그린리모델링 사업 결정 기준 ▲성남시 내 488개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순위 선정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효과를 계산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 그린리

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대략적인 사업 추진 비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정기 기자,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그 가수에 그 팬... '김포영웅시대', 취약층에 따뜻함 선사

(가수 임영웅 팬모임)

가수 임영웅 데뷔 8주년 기념일 맞아
우리병원에 의료 지원금 350만원 전달

김포우리병원은 최근 가수 임영웅 팬모임인 '함께하는 김포영웅시대'가 취약계층 환우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함께하는 김포영웅시대'는 임영웅 가수의 데뷔 8주년 기념일인 오는 8월 8일을 맞이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350만 원을 김포우리병원에 기부했다.

우리병원은 전달받은 이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환우에게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함께하는 김포영웅시대' 회장은 "같이의 가치"의 뜻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김포의 대표 의료기관인 김포우리병원에 기부하게 됐다"라며 "임영웅 가수



함께하는 김포영웅시대가 김포우리병원에 취약계층 환우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포우리병원제공

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도현 김포우리병원 병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함께하는 김포영웅시대'로부터 받은 위로가 삶의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천용남 기자

남양주시의회, 관내 행정센터 격려 '발걸음'

(자치행정위원회)

7곳 방문·주요 현안 사업 점검 실시
구체적 추진상황 확인·애로사항 청취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4일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7곳(와부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별내동)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행정위원회가 후반기 들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소관부서인 행정복지센터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남양주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방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한근수 위원

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할 읍면동장 및 담당과장으로부터 각 센터의 주요 현황들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현안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7급 이하 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74만 남양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소형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안양 시민들 행복 위한 의정활동 펼칠 것”

박준모 시의회 의장, 인터뷰서 포부 밝혀

집행부 소통·협력 강화한 '상생 의회'
청년 정책 발굴로 발전적 안양 '약속'

“시민의 행복·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바른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상생 의회를 만들고,

상호 존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청년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내비쳤다.

그는 “첫 의정 생활을 했던 2018년 당시 자신도 청년 의원이었다”면서 “청년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발전적인 안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안양 발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공감형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송경식 기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안양시의회 제공

여주시 경제 활성화에 '한마음 한뜻'

사·관·내골프장, 상생바우처 협약 체결

회원예 전통시장·상가 이용권 지급
이충우 시장 제안, 20개 업장 '화답'

여주시는 지난 24일 여주지역 20개 골프장과 '여주시-골프장 상생 바우처'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여주시와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바우처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골프장 상생 바우처 사업은 지난 1월 이충우 시장이 지역 상권과 골프장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제안한 정책으로, 20개 골프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바우처 발행을 위한 금금을 마련하

기로 했다.

본 바우처 사업은 기금 소진 시까지 각 골프장의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인당 1만 원, 팀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가 등에서 1일 최대 5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사업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도심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영 상황임에도 상생 바우처 사업에 협조해 주신 각 골프장 대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골프장과 상생 바우처 사업이 지역 골프장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인 한금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석균 기자



여주시는 여주지역 20개 골프장과 '여주시-골프장 상생 바우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여주시 제공

정갑영 교수가 들려주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제17대 총장)

안산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강연 개최
관내 기업에 고금리 등 경제 전망 설명

안산상공회의소는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제17대 총장)를 초청해 '제 161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연에 앞서 권혁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지속과 지정학적 이슈,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최선의 솔루션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강연은 안산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상의 회관 그레이트홀에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



안산상공회의소의 '제 161회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한 기업인 등이 강연회가 끝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회복 난망', '테크 주도 미국경제 호황',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 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 다극체제 분할', '한국 내부의 구조적 제약'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및 아시아의 경기가 부상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세계 경제의 향방을 전망했다.

글=김준호 기자, 사진=안산상공회의소 제공